

北韓協商要員의行態分析

—北韓의協商指導와理念—

1973.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 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1973년 6월 일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이 기 택

目 次

1. 協商指導의 問題点과 把握	3
가. 問題의 把握	4
나. 北韓의 協商指導와 理念	5
2. 南北接觸에 따른 連結과 接觸發源의 分析	7
가. 南北韓의 「社會化」	7
(1) 第3國을 媒介로한 接觸	7
(2) 權力中心部의 接觸	8
(3) 南北韓記者의 交流와 接觸	9
(4) 人的交流의 連結과 社會化	10
나. 南北韓社會化의 問題点	11
3. 平壤의 協商指導와 理念	14
가. 北韓의 協商指導의 特性	14
나. 두南北協商 (赤十字會談 및 南北調節委員會) 의 性格	22
(1) 南北赤十字會談의 性格	22
(2) 南北調節委員會의 性格	24
다. 具體的인 協商指導와 目標	26
(1) 南韓言論의 封鎖	27
(2) 南韓의 基本社會體制의 破壞	31
(3) 「動亂體制」의 瓦解	33

4. 南北協商의 政策的次元의 諸問題点	37
(1) 「諜報活動」과 「政治協商」의 区分	37
(2) 南北協商過程에서의 技術性和 理念性	39
(3) 北韓에「비둘기」派와「매」派가 있는가하는 問題点	41
(4) 南北協商과 心理戰問題(統一黨목소리放送)	42
(5) 南北韓赤十字會談의 政治化事由	44
(6) 北韓의 「平壤政府」의 經濟自強	45
(7) 南北接觸과 第3國關係	46

1. 協商指導의 問題點과 把握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歷史的 協商關係가 어느意味에서 그 고비를 넘어서서 「現實化」라는 「轉換點」을 매듭을 지을수밖에 없는 段階에 이른것이 事實이다.

이미 長時間에 걸쳐 그 協商過程을 거친 「南北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가 그 어느것이나 最終的인 會談의 「共同 커뮤니케」하나 내지못하였다는것이 이를 意味한다.

南北韓 協商의 「現實化」란 意味속에는 現在까지의 南北韓 協商의 두가지 方法과 「루트」인 「南北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란 메카니즘을 통한 協商에서 相當히 「氣分的」이며 「무드」의이고 「오퍼레이션날」한 側面이 짚었던것이 또한 事實이다.

다시말하여 「實質的」인 問題點接近이라기 보다 政治的「제스처」로서 政治的「主導」를 누가 하느냐하는데 그焦點을 두어온것이다.

이 意味에서 協商의 「轉換點」이란 고비에 이른것이 事實이다. 現在까지의 實質的」協商아닌 「政治的제스처」로서의 協商이 南北 協商過程에서 새로운 實質的打開와 새로운 目標와 方法論을 相互 南北間에 妥結을 보지못한데서 最近의 「南北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에서 「共同聲明書」조차 發表못한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 南北韓相互間의 協商指導의 새로운 目標와 方法을 摸索하지 못한다면 南北韓 協商의 「轉換點」을 넘기기는 어렵다고 評價될수밖에 없는것이다.

本論稿는 特히 北韓의 「協商指導」라는 問題에 그 焦點을 두고

이를 分析하면서 南北韓協商의 本質과 問題點을 提起하는데 있으며 나아가서 앞으로의 南北韓協商過程의 問題點도 아울러 論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가. 問題의 把握

여기에서 北韓의 協商指導에 關한 問題의 把握은 優先 그 期間을 韓國動亂以前의 南北韓協商의 關聯性과는 分離하였으며 最近 2 3年間에서 시작된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와 關聯한 期間을 通한 南北協商에 局限하였다.

그 最終期間은 「第六次南北赤十字會談」이 終了한 1973年 5月 11日 까지로 止하였으며 또한 「南北調節委員會」第 2次會議가 平壤에서 열렸던 1973年 3月 14日~ 15日까지는 勿論 포함된다.

특히 1973年 3月 14日~ 15日兩日間に 걸친 平壤에서의 「南北調節委員會」의 重要性은 異例적으로 하나의 「合意文」도 없는데다가 「共同發表文」도 없었다는 事實은 매우 注目할 轉換點이 된다고 假定하여 重要的 協商의 고비와 期間이라고 볼수있다.

또한 이러한 「南北調節委員會」第 2次會議의 교착상태는 그 轉換點을 證明해주듯이 5月 11日 끝난 「第 6次南北赤十字會談」에서도 역시 別「共同發表文」이 없이 그 끝을 맺었다는 點에서 이두 最終會談의 포함은 北韓의 協商指導를 論하는데 매우 重要的 期間이라 볼수있다.

두개 「資料」面에서 매우 困難하다. 「南北赤十字會談」은 어느 程度 可伯될수 있으나 事實上 北韓의 協商指導分析에 重要하고 必需的한 「南北調節委員會」의 協商資料는 거의 求得할수 없으므로 어

려우며 더욱 「共同發表文」조차 發表않을때는 그困難性은 말할 必要조차 없는 것이다.

세째로 南北協商에서 北韓協商要員이나 北韓의 協商指導體制에서 問題點의 核心은 무엇인가 하는 點이다.

勿論 北韓의 協商指導에 그 論點을 두나 北韓의 協商指導에서 理念과 分離된 協商指導는 상상할수 없다는 點에서 協商指導와 理念問題를 결부시키며 理念의 展開도 關聯하여 分析하였다.

南韓側이 協商指導에서 比較的 「技術的인 接近」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北韓의 南北韓協商에서 「指導理念」을 망각하기 쉬운때도 있다는 點에 있어서 이 點을 強調하였다.

네째로 接近方法에 있어서 그어떤 學問的 方法論을 適用하지는 않는다. 南北韓協商의 現實的 性格上 「現實的接近」以上の 方法論은 있을수 없는것이다.

나. 北韓의 協商指導와 理念.

이미 北韓側은 協商指導의 目標과 展開에서 協商이란 外交的手段이 아니라 「理念的次元」에서 南北協商을 「政治戰」의 手段인 「心理戰」의 次元에서 運用하여 가고 있는것이 事實이다.

北韓의 協商指導는 協商自體의 目標가 아니라 「南北赤十字會談」 및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털어서 「政治化」하여감에 따라서 「心理戰的次元」의 協商指導를 하여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注意할點은 「協商指導와 理念」이 하는 觀點에서 理念의 把握없이 北韓의 協商指導의 目標와 方向을 알수있겠는가하는

点과 나아가서 北韓의 앞으로에 있어서의 協商指導를 予測할수 있겠는가하는 点에서 協商指導와 理念問題는 不可分の 相関關係에 있는것이다.

이題에 있어서 兩韓側의 協商指導는 「非政治的」立場 또는 「非理念的」立場을 協商指導理念에서 取하고 있는것은 옳으나 協商方法에 있어서 對北韓 協商에서 지나치게 「技術的」次元을 主로한 接近은 이미 그限界가 나타나고 있으며 對北韓의 協商指導에 事實上 말려 들어가는 協商狀況을 印像주고 있는것이 事實이다.

北韓의 協商指導의 理念과 目的을 把握하지 않고서 北韓의 協商과 指導를 占칠수는 없는것이다.

더욱이나 南北協商의 目的이 韓半島에 있어서 統一된 韓國이 어떤性格의 政治集團이 되는냐하는 것이라면 卽 韓半島의 統一形成의 性格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南北協商의 궁극적목표라면 北轉의 理念을 기초한 協商指導體制를 다른 技術的方法이나 괴상적인 그어떤方法으로는 接近조차 할수없는 것이다.

이미 北韓側은 協商의 方法에까지 理念化시켜나가고 있는것이 事實이다. 例로 南北調節委員會第2次會議에서 經濟·社會·文化分科委員會設置보다 軍事問題가 優先해야한다고 하는것으로 會議의 共同發表文조차없이 閉會한 例가 그좋은 例다.

北韓의 協商指導를 把握함에 있어서는 필히 철저한 北韓의 協商指導理念을 優先 把握하며 그것도 現實的角度에서 指導理念을 把握해야한다는 것이 大前提가 아닌가 생각된다.

2. 南北接觸에 따른 連結과 接觸發源의 分析

南北韓協商過程에서 南北接觸에 따라서 直接間接으로 南北韓의 要素間的 連結과 接觸源을 낳고 있으며 이를 南北韓間的 「社會化」라고 부를수 있다. 상급까지는 이러한 南北協商過程에서의 「南北의 社會化」는 大幅的인것은 아니나 이미 여러가지 連結點을 낳고있으며 또한 問題點을 낳고있는것이 事實이다.

南北接觸에 따른 接觸源의 形成은 實際上 社會交流 即 思想의 相互交流와 傳播를 낳고있으며 또한 이러한것은 相互影響을 주게마련인 것이다.

例를 든다면 처음 南韓代表團이 平壤을 訪問時 「브라운」管을 통한 平壤거리의 映像을 볼수있다는 것은 一般民에게 있어서 크나큰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事實上 平壤거리의 映像이나 資料는 몇일전까지 만하여도 諜報水準에서도 얻기 어려운 資料였으니 충격적일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南北間的 接觸點의 幅이 擴大된것은 事實이다. 이번 南北協商이 開始되기 전까지는 諜報水準에서도 求得하기 어려웠던 平壤市街의 映像이 南韓一般國民의 안방에까지 밀려 든것이다. 이러한 南北間的 社會化는 앞으로 많은 問題點을 낳게할 것임은 말할필요 없는것이다.

여기에서 그 「連結點」과 「接觸發源」을 보고 이어서 問題點을 論함으로서 北韓協商指導와 關聯하여 論한다.

가. 南北韓의 「社會化」

南北韓의 모든側面에서의 「連結點」 또는 「接觸發源」은 다음과 같은 事項을 中心하여 南北間的 「社會化」를 促進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1) 第三國을 媒介로한 接觸

北韓의 現實이 最近몇年前부터 公開되기 시작한것은 第三國을 媒介로 하여서였다.

특히 第三国記者들의 「르뽀」가 相當한 水準의 記者의 入口으로 北韓의 現實이 反映되게 시작하였다. 때로는 記者以外에도 日本東京都知事「미소베」와같은 人物에 의해서도 金日成과의 인터뷰記事를 통하여 北韓의 權力層中心部の 思想까지도 日本을 통하여 韓國으로 流入되는 形式으로 傳達되었다. 이러한 第三国을 통한 間接的인 接觸과 이에 起因하는 影響은 韓國의 知識人이나 關係專問家들에게 신속하고 깊은 影響을 주게된다. 특히 이들 記者나 政治人이란 媒介體는 北韓의 政治的主張이나 要求를 南韓 或은 南韓에게 影響을 주는 第三国에게 傳達되기도 하는 方法이 되었다.

美國「하바드」大學敎授「코-헨」의 北韓訪問은 그 代表的인 例이기도 한것이다. 「코헨」의 訪問은 言論또는 서울訪問을 통하여 깊은 影響을 주게된다는 節次를 통해 南北交流의 한 形態를 取하게 되는 것이다.

(2) 權力中心部の 接觸

韓國의 中央情報部長의 金日成訪問은 事實 南北韓權力中心部の 接觸源을 낳았다. 더욱이나 實質上 南北韓의 權力의 實力者의 直接的接觸이란點에서 매우 重要的 接觸發源이 되었다. 이러한 連結點은 事實上 오늘날의 새로운 次元의 南北關係를 形成해놓은것이 이 接觸에서 起因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거꾸로 北韓副首相 朴成哲의 朴大統領 訪問도 그例로 들수있다. 勿論 이러한 南北韓權力中心部の 接觸이 基本的政治的立場을 바꾸어 놓는것은 아니나 앞으로 이러한 南北權力的 相互間 遮礙性은 南北韓權力에도 多少間 影響을 남겨질 依存性을 形成해 놓은것이 事實이다.

南北韓의 權力担当者는 그어떤 國家政策을 實踐하여갈때 그政策의 條件化는 필수적으로 評價된다. 南北間의 權力担当자가 過去에는 거 이 分離된 狀態下에서 相互間的 直接的인 政策的考慮없이 政治를 進行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相互間的 存在를 意識함이 없이는 軍事·外交·經濟·社會問題를 處理하여갈수 없게된것이 事實이다.

(3) 南北韓記者의 交流와 接觸

아마도 南北間의 「社會化」에서 가장 큰 機能을 하고있는것은 역시 韓國記者들이다. 勿論 北韓記者는 우리側이 생각하는 言論界의 記者「카테고리」에 屬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北韓記者란 「카테고리」層도 역시 接觸點을 이루어놓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北韓을 訪問하였던 韓國記者의 報道는 南北韓分斷史上 처음으로 대대적인 報道를 한셈이었다. 몇일前까지도 一絶秘密에 屬할 수 있었던 記事와 寫眞이 홍수처럼 讀者앞에 쏟아져나왔다.

南北韓의 「社會化」過程에서 記者만큼 큰 役割을 한것은 없다.

이러한 言論의 南北韓間의 社會化에서 큰 悉味를 지닌것은 北韓을 南韓住民들에게 「現實化」시켜 노았다는 點일것이다.

事實上 새로운 南北關係以前에는 南韓住民에게 있어서 北韓社會는 完全히 폐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南韓住民들에게 있어서 北韓이 莫然히 想像의이며 架空的인 「이미지」를 떠고 있었던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記者들의 北韓訪問으로 北韓의 實狀이 國民들 눈앞에 現實적으로 나타난것이다.

나선거리 越南國民에게도 나선거리로 비칠程度로 「現實化」한것이 었다.

이러한 「매스.콤」을 통한 南北接觸의 發源은 特히 「테레비」를 통하여 충격적으로 投影되었다. 南北韓의 直接的接觸이나 또는 北韓의 모습이 「보라운」관을 통하여 그대로 南韓住民에게 投影될

때 決定的인 「南北韓社会化」의 機能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注目할 點은 「南北韓社会化」의 意味는 一方的인 것이다.

勿論 北韓에 있어서 南韓의 그 무엇이 入北하였다는 「氣味」自体가 北韓住民에게 있어서 충격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北韓住民에게 큰 動요를 갖어다 줄수있는 要素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尙속은 北韓支配層이 계속 南韓의 要素가 入北한것에 철저한 排外정책을 強行하고 있음으로 해서 北韓의 立場에서는 「南北韓의 社会化」의 意味에서 는 一方的인 것이다.

이에 比하여 南韓側의 立場에서 볼때에는 北韓의 排外성에 反하여 南韓은 完全히 開放이 되어 있다는 點에서 또한 一方的인 것이다.

이 點은 앞으로 南北間의 社会化過程에서 매우 重要한 問題點을 提起시키고 있는 것이며 다음 南北韓社会化의 問題點에서 重點的으로 論한다. 南北韓社会化過程에서 北韓은 自己社会의 固守性を 堅持하면서 南韓社会의 開放性を 十分活用하여 心理戰次元에서 南韓社会에 대한 政治的 侵透란 角度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판」은 南韓에서만 벌려보겠다는 뜻인 것이다.

(4) 人的交流의 連結과 社会化

人的交流에는 무엇보다 赤十字代表 및 南北調節委員會代表 또 數 많은 遂行員이 代代적인 接觸이 이루어져왔다. 또 그以外에도 選勵選手의 南北間의 試合을 통한 人的交流도 包含된다.

上記論한 赤十字代表나 調節委員會代表에는 政治人·官僚, 學者, 言

論人等으로서 南韓側으로는 比較的各界의 人士가 代表되고 있으며 北韓側은 政治的人士라는 北韓特有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注目點은 이들 南北韓人士가 相互간에 広範圍한 接觸을 獲었다는 點이다.

여기에서 빼놓을수 없는點은 南北韓間의 情報次元의 實務者들이 또 한 広範圍한 接觸을 獲었다는點이 큰 特徵일것이다.

어떤意味에서 相互간에 露出되는 反情報機關的傾向도 있다는點을 否認할수 없다.

이러한 社會·官僚·言論人·學者 北에서는 黨幹部를 中心한 南北間의 接觸의 結果나 影響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좀더 時間을 두고 볼 問題인것이다.

나. 南北韓社會化의 問題點

이러한 南北韓間의 社會化過程에서 여러가지 接觸點은 北의 「閉鎖社會」와 南의 「開放社會」라는 特性을 갖는 兩社會의 接觸과정에서 이미 問題點을 지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南北韓社會化過程에서의 問題點을 最近 「海州」에서 發送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統一黨목소리의 放送」의 경우를 中心하여 그 問題點을 論하여 보기로한다.

最近에 開設되어 對南放送을 開始하고 있는 「統一黨목소리의放送」은 「南北의 社會化」過程을 十分 活用하기 시작한 好例이다.

첫째 「統一黨목소리의放送」은 南韓에 基礎를 둔 革命勢力이란

假定위에서 實踐하고 있는 「心理戰」次元의 대대적인 北의 對南政策의 一環인것이다.

「心理戰」의次元이라함은 우선 南北의 報道를 똑같이 하고 있는 듯한 印像을 주면서 特히 南韓에서 報道되고있지않는 第3國의 對韓記事 또는 報道를 「事實報道」形式으로 하고있다 .

또한 南韓社會의 各種모순 또는 事件에 關해서 「報道되지않은 部分」을 公開的으로 報道함으로써 이역시 「事實報道」形式을 取하고 있으며 어떤意味에서는 南韓社會에 對한 侵透를 能熟히 「心理戰」次元에서 公연히 하고있으며 放送의 出力等에서 서울의 一般放送과 다름이 없다 .

放送의 內容은 「서울말」로 學生層, 勞働界, 軍等を 對象으로 南韓의 「開放社會」의 弱點을 充分히 活用하여 社會모순을 論理的으로 分析批判하면서 暴露的인 心理戰을 強力히 펴나가고 있는것이다 .

南北社會過程에서 我側은 속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가하는 問題가 된다 . 對北放送은 中止되었을뿐 아니라 또한 放送技術上 北韓에 對한 放送侵透는 實際上 不可能하다면 南北社會化가 一方的으로밖에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結果가 된다 . 또한 이러한 「統一黨목소리 의放送」이 南北韓社會化過程에서 代表的인 「問題點」을 提起하여주고 있는것이다 .

「統一黨목소리 의放送」의 例에서 보듯이 南北韓社會化過程에서 「社會化」를 어떻게 對處할것인가하는 問題는 이미 政策的考慮가 깊이 주어져야할 問題인것이다 .

그렇지 못할 때에는 南北社会化過程에서 社会의 一角이 理念的인 側面에서 무너지는 結果를 招來할 可能性이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지 모른다.

특히 南北韓社会化過程에서 「統一黨목소리」의 「事實報道」에서 보듯이 「情報源」이 角度에서 北에 依해 南이 支配를 當하는 傾向을 떨수도 있는 것이다.

三. 平 의 協商指導와 理念

北韓의 協商指導의 原理와 目標은 長期的인 意味에서 南北關係를 어떤 方向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가 本章의 論議點이다.

北韓의 協商指導와 理念을 分析함에 있어서도 역시 「現實的」接近이 必要하며 特히 北韓의 協商指導를 分析할때 西歐側方法論으로만 接近한다면 北韓의 實像을 그대로 把握하는데 많은 阻害要素를 지니게된다. 卽 固定된 「우리의 思考方式」으로만 北을 分析하는 것은 危險한 일이다.

例로 北에도 「비들기」派와 「매」派가 있다는 假說을 두고보는 方法이다. 北韓의 政治體制에서 「비들기」派와 「매」派를 보는것을 마치 越선敵을 대하는 美國内の 「매」派와 「비들기」派의 政治的對立으로 보는 思考패턴으로 北을 본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南北韓의 體制上的 差異는 「協商」이란 單語하나 규정하는데도 엄청난 差異를 두고 있는것이다.

다음 北韓의 協商指導에 關한 問題點을 몇가지로 区分하여 論한다.

가. 北韓의 協商指導의 特性

北韓의 南北韓協商指導의 基礎에는 첫째 「政治化」라는 原理와 둘째 「心理戰」的次元에서 모든 問題를 集約化하여 나가고 있다고 본다.

첫째 協商의 「政治化」라는 原理는 北韓의 協商指導의 모든 面에서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協商의 「政治化」는 南北協商의 人道的協商인 南北赤十字會談의 初期인 「予備會談」에서부터 充分히 表示되고 있다 .

別表에서 보듯이 南北赤十字會談을 「政治化」하기 위한 發言統計를 보면 「第1次予備會談」에서 「第25次予備會談」에 이르기까지 232回라는 頻度를 보여주고 있다 . (別表參照)

語彙	會談次數 20次 까지 計	21次	22	23	24	實務會議			25次	總 計
						1次	2次	3次		
民族會談背景으로	551	30	13	8	8	3	33	5	18	669
赤十字精神을	289	3	6	4	1	1	13	3	4	324
與論을	56	9	7	2	2	3	2	1	12	94
代表間 同胞論	83	2	4	5	1	2	7	0	4	108
雙方努力 強調	79	0	1	1	0	0	0	1	0	82
正當性 主張	246	0	3	0	1	2	13	5	0	270
雙方意思 共通	56	0	0	1	1	0	0	4	0	62
意見 差	37	0	1	1	2	1	0	4	0	46
人民共和國呼稱	190	7	9	15	8	0	8	6	11	254
民族特殊性指摘	42	0	0	1	0	0	1	0	0	44
政治的擴大企圖	197	10	5	6	4	0	3	0	7	232
責任駁嫁發言	91	0	0	0	0	1	1	0	0	93
無誠意 指摘	205	3	0	0	0	3	4	4	0	219
警告 發言	28	0	0	0	0	0	0	0	0	28
人身 攻擊	18	0	0	0	0	0	0	0	0	18
南北共同聲明	0	11	8	16	12	1	19	4	7	78

別表에서 보면 會談別 北赤代表가 使用한 重要語彙順에서 「政治的擴大企圖」의 頻度보다 높은것의 重要한 語彙은 「民族을 會談背景으로」, 「赤十字精神을 背景으로」, 「正當性主張 發言」, 「人民共和國呼稱」 等順으로 되어 있다 .

別表에서 16個의 北赤代表의 重要發言中에서 「政治化」發言이 5종의 順位로 되어 있으나 「民族」과 「赤十字精神」이란 基本的發言과 會談과 協商에서 適當한 「正當性發言」을 除外하고나면, 「人民共和國呼稱」이 남게되나 「人民共和國呼稱」使用도 政治的發言에 屬한다면 「政治的擴大企圖」發言은 發言頻度一位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政治化」라는 北韓의 協商指導原理은 이미 南北協商初期段階였던 南北赤十字第 15次予備會談에서의 「自由往來」論爭에서 찾아볼수 있다 .

第 15次予備會談에서 議題討論로서 北赤側은 「自由往來」를 韓赤側은 「相互訪問」을 主張하게 되었다 .

北赤側의 「政治化」發言과 主張을 보면

「單一民族으로서 제나라 제땅에서 自己家族들과 親戚들끼리 왜 自由롭게 來往하지 못하겠습니까」

「民族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하여 積極的으로 努力한다면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에 自由롭게 오고 갈수 있도록 能히

풀어 놓을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입니다 .」

「自由로운 來往을 要求하는 人民大衆의 積極的인 支援에 依拠한다면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自由로운 往來問題는 能히 實現」

「以上에서 說明한바와 같이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自由로운 來往을 包含한 우리側 (北韓) 의 새提案은 우리나라의 客觀現實의 合法的要求와 우리人民들의 念願을 正確히 反映하고 現實的可能性을 打算한 가장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方案이며 누구에게나 接受될수 있는 公明正大한 것입니다 .」

이 「自由往來」의 論争속에는 事實上 赤十字會談의 本旨인 「緊急을 要하는」 「人道的事業」이 아니라 南北統一問題라는 항상 政治問題와 結付시킴으로써 赤十字會談自体를 「政治化」한다 는 것이 北韓의 協商指導의 大原則으로 되어 있는것이다 .

北韓自体內에서도 그들 스스로가 自由往來조차 許容않고 있는 社會 . 政治休制를 維持하고 있는 北韓이 南北韓住民의 「自由往來」에서 무엇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가는 쉽게 추측할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南北赤十字會談初期에서부터 나타나고있는 「政治化」原則은 南北調節委員會에서도 強力히 나타나고 있으며 南北調節委員會를 교착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것으로 評價된다 . 卽

1973年3月14~15日 平壤에서 開催된 南北調節委員 第2次會議에서 調節委員會事業에서 軍事問題先決論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 「政治化」의 強力한 意圖의特徵이라고 볼수 있다.

勿論 南北調節委員會라는것이 政治的이 아닌것은 아니나 그 事業順位에서 가장 政治的인 「軍事問題」를 先決論으로하여 事業의 最優先順位에 놓는다는 것은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化」를 企圖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南北調節委員會의 事業中에는 比較的非政治的인 分野인 經濟·社會文化 或은 스포츠라고 하는 問題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北韓側이 이러한 比較的非政治的인 事業分野를 제쳐놓고 가장 政治的인 分野인 「軍事問題」를 提議하고 있는것은 역시 「政治化」過程을 促進하겠다는 北韓側의 政策이라고 볼수 있다.

더욱 第2次南北調節委員會에서 範圍側이 軍事問題를 先決한다는 條件으로 經濟·社會·文化分科委員會를 設置하자는 提議를 拒絶하고 있는 것도 역시 「政治化」의 強力한 北韓側反應이라고 볼수 있다.

勿論 이러한 北韓側의 「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를 「政治化」시켜 나가는 目的을 北韓은 政治的主張을 基本的으로 慣撤시켜놓은 후에야 問題를 解決한다는 北韓의 協商指導理念과 強力

히 結付된다는 大原則에서 起因하고 있는 것이다 .

「政治化」란 大原則以外의 北韓의 協商指導의 特性은 「協商」을 「心理戰」次元에서 다루어가고 있다는 点이다 .

여기에서의 問題点은 「協商」인가 「心理戰」인가하는 의문을 提起하게 되는것이다 .

外交的인 意味에서의 協商은 協商当事者間의 利益의 妥協과 結 Chung인것이다 .

그러나 北韓側은 「政治化」의 指導理念에서 보듯이 妥協할 수 없는」 政治的基本原則을 協商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서 「協商없이」 協商하려는 外交패턴이 北韓側의 協商指導理念과 方法인 것이다 .

그러면 北韓側의 協商은 무엇과 連結되어 갈것인가하는 問題다 .

北韓側의 協商指導에서 北韓側은 協商을 「政治化」過程을 거치면서 終局的으로 政治戰의 一樣相인 「心理戰」的次元과 連結시켜 나가는것이 北韓의 協商指導라고 볼수 있다 .

이러한 北韓側의 「協商」을 「心理戰」的次元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点은 역시 南北協商初期부터 나타나고 있는 特性인 것이다 .

事實上 北韓側은 協商테이블에서는 妥協할수 없는 原則的인 基本問題를 들고나오면서 協商自体를 南北協商前의 「平和攻勢」等에

서 보아온 心理戰的 또는 政治戰的次元으로 이 끌어가는것이 協商指導
目的이라고 評價될수있다 .

過去의 北韓의 「平和攻勢」의 內容과 方法이 現北韓의 協商內
容과 方法에서 그어떤 差異點을 찾아볼수는 없다 .

事實上 南北韓協商에서 北韓은 體制나 理念上的 추후도 變動없이
나가면서 南韓의 開放社會의 利點을 十分 活用하여 오늘날까지 불
수 있는 理念上的 混亂을 韓國民에게 주었다는點 自体가 이미
훌륭한 北韓의 協商的 心理戰的 次元의 一部分의 成功이라고 할수
있다 .

이러한 南北韓協商的 北韓의 協商指導와 目的에서 「政治化」와
「心理戰」的次元에서의 協商結果와 影響은 多樣하게 여러가지 側
面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나. 두 南北協商 (赤十字會談 및 南北調節委員會)의 性格

「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의 協商의 性格은 무엇이며 그 協商의 性格이 어떻게 變化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다.

(1) 南北赤十字會談의 性格

南北赤十字會談의 法的 . 社會的 . 政治的 性格과 協商의 性格을 具體적으로 본다는 것은 앞으로의 南北協商의 向背에 큰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南北赤十字會談의 法的 性格을 보면 南北韓間의 離散家族찾기를 人道的立場에서 推進한다는 根拠는 赤十字의 精神과 赤十字의 事業인 捕虜, 抑留者의 保護 및 送還, 非戰鬥員의 保護 또는 內亂이나 災害에 이르기까지 擴大된 赤十字의 事業節次에 그 根拠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南北離散家族이 韓國動亂을 期點으로 하여 人爲적으로 面會의 機會가 政治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充分히 그 根拠를 찾을 수 있으나 原來 赤十字事業은 「緊急을 要하는」 것이란 時間的 촉박성이 條件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南北韓赤十字會談은 점차로 時間的인 長期化에서 「緊急」이란 法的要因을 벗어나서 政治化하여 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意味에서 점차로 本來의 赤十字會談의 法的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長期化가 予想되고 政治化함에 따라서 事實上 一種의 人道的 政治會談의 性格을 띠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두째 南北赤十字會談의 社会的 性格은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赤十字會談의 性格이 人的交流라는 國家間基本交流라는 基本패턴에서 볼때 北韓이란 「閉鎖社會」가 그 門을 開放해야 한다는 社会的 理論이 된다. 그러나 北韓社會라는 것은 個人的 統制를 基礎로 하여 閉鎖社會를 이루고 이 閉鎖社會위에 國家權力이 基礎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閉鎖社會를 開放한다고 할때는 北韓社會는 많은 基本的인 問題點을 안고 있으며 權力構造와도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다.

北韓社會가 엄격한 意味에서의 北韓社會를 開放하고 自己들이 主張하는 「自由往來」를 實踐한다면 北韓社會의 基礎인 「閉鎖性」을 打破할때 權力的 基礎가 무너짐으로 해서 金日成權力體制가 瓦解될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北韓側은 이會談을 政治化시키려는 意圖에서 「自由往來」를 心理戰的次元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南北離散家族이란 「社會性」을 볼때 事實上 南下한 500 萬의 離散家族이 問題인 것이다. 動亂中 南下한 離散家族을 離散의 起源과 狀態를 보면 大部分의 家族單位가 離散되어 있다.

國軍이 北進하였다가 南下時 南下家族中 家長이나 長男 혹은 長女 即 戰爭의 避害를 直接的으로 겪을 男子나 長子만이 다시 수복을 기약하고 南下하였다는 點이다.

따라서 北韓에는 妻와 어린 애를 두고 南下하여 20 餘年을 보내는 離散家族이 相當數에 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離散家族의 「社會性」은 北韓의 閉鎖社會에 政治的으로 매우 重要的 意味를 갖는 것이다.

北韓의 大部分의 家族中 한, 두명 特히 家族의 中心인 家長 또는 長男이 南下하였고 殘留한 家族은 南의 家族을 생각하여 왔으며 北韓의 強力한 「政治教育」이 아무리 크게 作用하였다 해도 離散家族의 社会性이나 政治的 解決은 어렵다고 볼수밖에 없다.

따라서 北韓이 離散家族問題를 解決하느냐 하는 問題는 北韓의 權力의 基礎인 北韓社会의 「閉鎖性」을 開放하여야 한다는 政治的 体制問題와 直結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南北赤會談의 社会的性格이 곧 政治的性格을 띠게 되는 論理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南北赤十字會談의 社会的 政治的性格이 곧 協商의 性格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 問題는 赤十字의 人道的 性格을 벗어나 結局 「政治問題化」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南北調節委員會의 性格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的 性格은 基本的으로는 韓半島統一이라고 하는 命題를 前提하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統一이 事實上 가까운 將來에 어렵다는 것이 常識이라면 南北調節委員會란 「메카니즘」은 다른 次元의 性格과 그 政治的 意味를 찾을수 밖에 없다. 비록 「南北共同聲明書」에 나타난 철저한 「統一主意」에 不拘하고 當分間 「統一主義」의 관철이 어렵다면 當分間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的 性格과 機能은 그 意味를 달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韓半島에 組織화된 「南北調節委員會」란 「메카니즘」은 그 一次

的機能과 性格이 「緊張緩和」라고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韓半島란 東北亞의 緊張地帶가 緩衝地帶의 機能에서 緊張誘發을 막기 위한 「安全弁」(Safety Valve)의 機能이라고 評價된다.

이 意味에서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的 性格은 二重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 하나의 国内的意味에서의 南北의 軍事的 政治的 緊張을 緩和한다는 目的이며 그 또 하나의 機能은 國際的 側面과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는 것으로서 東北亞의 緊張緩和의 「메카니즘」으로서 日.中共間의 緩衝化를 組織化하는 特殊하고 高次的機能을 할수도 있다는 点에서 그 性格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機能은 事實上 基本的인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的 性格에 不過하다. 北韓의 協商指導에서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的 性格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는 問題와는 全然 別個의 單 問題에 屬하는 것이라고 본다.

北韓이 把握하고 있는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的 性格은 무엇일 수 있을 것인가.

北韓은 一絲不亂한 協商指導理念體制下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卽 「南北共同聲明」은 金日成의 「統一原則」을 南韓이 是認한 것이며 따라서 그 原則下에 設置된 「南北調節委員會」도 結局 金日成의 「統一原則」을 實踐하는 「手段」인 것이며 北韓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機構에 不過하다는 것이 北韓이 「南北調節委員會」에 對한 性格과 意味賦與인 것으로 評價된다.

北韓이 「南北調節委員會」라는 것을 어떻게 評價하고 있느냐하는

問題는 매우 重要한 問題이다.

또한 北韓이 「南北調節委員會」에 그 어떤 政治的 性格(目的)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協商過程과 그 方向이 달라질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의 重要한 評價는 北韓이 「南北調節委員會」의 協商指導를 결코 我側이 概念化하고 있는 「주고 받는」 外交協商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北韓의 協商指導體制에서는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化」를 통하여 北韓의 「統一原則」과 그 實踐의 「하나의 方法」으로 生覺할뿐이라는 것은 이미 協商테이블에서 「前提」하고서 임해야할 我側의 對北協商의 態度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미 「南北調節委員會」의 最近協商에서 提案한 「軍事優先主義」는 철저한 「政治化」를 통한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化」 및 「心理戰」次元의 北의 統一原則貫徹의 道具化에 그 目標가 있다고 볼수 있다.

다. 具體的인 協商指導와 目標

이러한 平壤의 協商指導와 理念의 大原則의 評價下에서 그 具體的인 몇가지의 北韓이 指導하고 있는 協商의 具體的 目標를 檢討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我側의 協商原則에서 北韓의 「合目的」的인 「二重協商」

에서 北韓의 協商指導와 目標間에는 때때로 分離키 어려우나 分離 시켜야 할 어려운 問題가 있다는 點이다. 我側協商指導에서 때때로 北韓의 이러한 「二重的協商指導와 目標」를 分離못하는 過誤를 犯하여 이른바 北韓의 協商目標에 「말려드는」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다.

我側協商態度는 항상 北韓의 協商節次와 指導의 方向에 따라서 그 協商指導에 神經을 쓰는 單一的이며 單純한 協商態度에 임하고 있으나 北韓의 協商態度와 指導의 「二重性」에 起因하는 北韓의 協商指導에 合理的으로 対応할 수 없으며 그 具體的 協商結果는 北韓의 「페이스」에 「말려드는」結果가 되곤 하는 것이다.

即 協商「테이블」위의 協商指導와 目標로 부터 北韓의 「全體的」이며 「理念的」이며 「合目的」的인 政治的 目標을 「区分」하는 일이 重要的 것이다.

이 두가지를 「区分」한다는 일은 對北協指導에서 매우 重要的 일이며 여기에서 그 重要的 몇가지 北韓의 協商指導와 目標에서 그 「区分」을 試圖하여 본다. 協商「테이블」上的 指導와 目標가 어떻게 巨視的 協商指導와 目標가 다른가 하는 點을 具體的으로 論하여 본다. 後者의 「巨視的」協商指導와 目標을 北韓의 「政治的 協商指導와 目標」라고도 할 수 있다.

(1) 南韓言論의 封鎖

南北韓協商에 있어서 南韓의 言論은 韓國側에 있어서 唯一

하고도 大大的인 協商指導의 對國民의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南韓國政府는 言論이란 手段을 通하여서만 올바른 「南北關係」의 「我側立場」과 그 「進行」을 國民에게 알려주고 指導할수 있다는 政治的 性格을 띠고 있는것이 言論이다.

이러한 言論이 北韓에 依하여 그어떤 制限을 받을때 그 政治的 영향은 자못 큰 것이다.

北韓의 協商指導와 目標에서 가장 初步的이며 始發的目標가 北韓의 協商指導過程에서 南韓의 言論의 「基本的論調」를 어떻게 影響을 주며 對國民關係에서 南北의 政治的基本關係를 어떻게 「歪曲」시키느냐 하는것이 었다고 評價된다.

北韓은 이런 「南韓의 言論封鎖」라는 目標에서 어느程度 成功하였으며 特히 協商初期에서 그로인한 混括은 큰 것이었고 我側의 協商指導에서 말려든 것도 事實이다. 北韓의 對南言論封鎖라는 協商指導와 目標은 두가지 側面에서 強力히 나타나고 있어왔다.

그 하나는 「南北赤十字會談」初期나 「7.4 南北共同聲明書」發表時期부터 나타났으며 이를 合意한 「南北韓의 相互 中傷, 비방문제」와 「對南, 對北放送 및 休戰線에서의 擴声器放送, 宣傳喇叭撒布中止에 對한 合意」가 北韓의 對南言論및 宣傳封鎖의 後半期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合意에 따라서 南韓의 言論과 心理戰次元의 對國民協商指導는 그 政治的 機能을 다 할 수 없게 되었다.

南韓의 言論機關은 事實上 間接的으로 北의 壓力을 받기도 한

것이 事實이었고 記者들은 이에 對한 神經을 쓰며 記事를 作成해야 했다.

그 特徵적인 例가 具體적으로 言論에서 하루아침에 「反共」, 「北傀」等等의 北韓을 「심볼」化하였던 어휘가 그 자취를 감추었다.

協商的인 面에서 「技術的」으로는 잘 處理가 되었으나 그 政治的인 影響은 解決될 수 없었다고 본다.

그 理由는 하루 아침에 協商「테이블」에서 大韓民國의 基本立場인 「國是」였던 「反共主義」가 言論에서 封鎖를 當함으로서 國民을 混亂에 빠뜨린 것이 事實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反共主義」는 大韓民國의 基本國是이며 「基本立場없는」 協商이란 點에서도 큰 混淆의 印象을 준 것이다.

初期의 我側協商指導에 있어서 南韓言論에 對한 「干涉」은 이러한 基本立場이란 政治的인 次元의 領域뿐 아니라 거꾸로 北韓의 基本理念이나 政治的인 行態에 對한 조그만 問題에 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큰 問題에서 작은 問題에 이르기까지의 對南言論에 對한 間接的인 干涉은 그 目標가 對南言論의 基本的인 論調의 「歪曲」 및 「鈍化」를 目標로 하는 北韓의 協商指導의 目標에서 起因하고 있다는 評價된다.

事實上 이러한 言論封鎖는 北韓言論의 基本論調에는 아무런 影響을 주지 않으며 다만 南韓言論의 基本論調에만 그 큰 影響을 미친 것이었다.

北韓의 協商指導에서 北韓으로서는 南韓言論의 基本的 論調를 파괴하고 분쇄하는데 어느程度 初期協商過程에서 成功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評價된다.

이러한 北에 의한 言論封鎖目標가 我側에 의하여 協商의 一時的 過渡的 措置라고 해서 그 영향과 評價를 過少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現在까지 南韓의 國民的總和는 「反共主義」와 「北傀」라는 이름 아래 形成되었으며 이러한 「國是的」理念의 言論上封鎖는 그 基本的인 南韓言論의 「基本論調」와 方向을 잃게 함으로서 앞으로도 그 영향은 계속 되리라 評價된다.

비록 이러한 北韓에 의한 對南言論封鎖目標가 南北關係協商의 無進展에서 是正된다 하여도 이러한 國是에 대한 政府의 「協商技術」로 處理했고 言論의 制限과 國民에 대한 不信은 계속되리라 본다.

北韓의 對南言論封鎖란 協商指導와 目標는 「南北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란 두가지 協商過程에서 強力히 보여준 北韓의 뚜렷한 協商指導目標였다고 할수 있다.

이에 比하여 我側은 北에 對한 與論(言論이 없으니까)에 조금이라도 介入할 수 있었느냐하 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評價할 수 밖에 없다. 그 理由는 간단하다. 北韓은 北韓의 統一原則(三大原則等)을 南韓이 受諾한것임으로 그 原則을 論하고 慣撤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論理이기 때문인 理由에서이다.

結局 北韓의 協商指導의 目標에서 協商「테이블」에서의 協商指導는 民族團合이란 善意의 「相互中傷비방」의 中止였으나 實際上 現實의이며 巨視的인 目標의 하나는 對南言論의 「基本論調」의 封鎖와 마비에 그 目標의 하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南韓의 基本社会体制의 破壞

南韓社会의 体制的基本에는 共產主義体制을 拒否한다는 理念을 基礎로 하는 「反共体制」가 社会体制의 基本이 되어있는 것이다.

北韓의 協商指導의 目標가 南韓의 基本的인 社会体制에 對한 攻撃을 加함으로서 「反共產主義」体制을 破壞한다는 것이 北韓의 協商指導의 根本的이며 基本的인 目標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南北赤十字會談」의 本會談議題의 第1項인 「南北에 扥터진 家族과 親戚의 住所 및 生死를 알아내며, 알려주는 問題」의 實踐方案의 討議에서 北韓側의 南韓社会体制에 對한 破壞라는 基本的目標가 잘 나타나고 있다.

上記 本議題의 第1項 討議에서 北韓側은 4 個項을 提議하고 있다.
即

① 南韓에서 모든 法律的, 社会的 障礙를 除去하고 当事者들과 協調者들이 民主主義的으로 自由롭게 意思를 表示하고 活動할 수 있는 條件과 環境을 造成한다.

② 雙方이 適當한 數의 赤十字 了解解說委員會를 各各 相對方 現地에 派遣한다.

③ 親戚의 範圍는 本人의 呼訴에 따라 定하며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途는 本人의 民主主義的要求와 自由로운 意思表示에 따라 定하게 한다.

④ 南北赤十字共同委員會를 構成하며 必要한 곳에 赤十字代表部를 設置한다.

北赤側은 이 4 個項目 實踐方案에 부연하여 要求條件으로서 北韓側

의 法律的, 社会的條件의 環境改善이란 意味와 意圖는 南韓에서 反共法, 國家保安法을 撤廢하고 政治犯을 釈放하며 反共政策을 拋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北韓의 南韓社會體制의 破壞라는 協商目標가 南北赤十字會談에서도 組織적으로 表示되고 있다.

南韓社會體制的 維持原則인 「反共產主義體制」의 基本原則을 攻擊하며 나아가서 이를 除去하라는 것은 事實上的 南韓社會體制的 「政治的武裝解除」를 北韓側이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了解委員」을 南韓各地域에 派遣하고 이른바 「民主主義的要求와 自由로운 意思表示」란 實踐項目은 事實上的 北韓政治局員의 南韓地域內에서의 自由로운 活動을 保障하라는 말과 같은 意味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北韓側의 論理는 「了解委員」이란 北韓人과 南韓에서의 住民과 接觸時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으로 다스림으로 北韓의 「了解委員」이 南韓地域에서의 自由로운 活動을 爲하여서는 當然히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除去하여야 한다는 理論인 것이다.

北韓側의 協商指導目標에서 「法律的, 社会的 障礙를 除去」한다는 原則과 實踐目標에는 南韓社會體制的 基本秩序인 「反共產主義體制」를 支持하고 있는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除去케 함으로써 結局은 南韓社會體制的 破壞라고 하는 基本的目標가 北韓側의 協商指導目標속에 包含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南韓社會體制的 基本인 「反共體制」의 瓦解를 目標로 하여 그 協商指導目標로서 「反共體制」의 事實上 解体를 意味하는 「反共法」

과 「國家保安法」을 除去하는데 그 目標가 있는 것이라고 評價할 수 밖에 없다.

即 南韓社會體制가 中性化함으로서 北韓體制를 受容할 수 있는 社會體制가 되어 달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南韓社會가 「反共法」이나 「國家保安法」없이 北韓의 政治局要員들을 받아들여 아무 制限없이 活動하도록 하며 即 公式的間諜을 받아 드리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提議를 하는데는 北韓이 南韓이 受諾할 수 없는 實踐方案을 提議함으로서 事實上 北韓社會體制的 開放을 忌避하는데 그 協商指導目標가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3) 「動亂體制」의 瓦解

過去 20餘年間 韓半島는 6.25 動亂以後 그의 安全保障體制를 한마디로 「動亂體制」라고 할 수 있다.

北韓側은 이 「動亂體制」의 瓦解를 그의 協商指導의 目標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動亂體制」의 基本的인 要件은 韓半島의 安全에 있어서 첫째 「유엔」의 性格 두째 美軍이란 條件이었다.

事實上 韓半島安全의 基本要件인 韓國軍事力을 除外한다면 「유엔」의 性格이 38線問題를 「유엔」停戰委員會를 通하여 解決해 주고 있었으며 그 「유엔」것발아래 美軍事力이 事實上의 韓半島安全을 지탱하여준 韓半島安全의 基本要件이었다.

北韓의 協商指導의 原理와 目標속에는 事實上 「動亂體制」의 「瓦解」라고 하는 것을 最大目標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動亂體制」의 瓦解는 事實上 韓半島問題 解決의 政治的 轉換點에 서 韓半島安保體制的 瓦解를 意味하며 北韓은 이를 目標로하여 軍事問題, 國際問題等에 걸쳐 各種의 協商指導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째가 軍事問題로서 첫째 美軍을 撤去시키고 民族自決原則에 서 統一問題를 解決한다는 것과 둘째 各各 南北韓軍隊를 10萬以下로 減縮한다. 셋째 「平和協定」締結로서 動亂體制的 終結을 짓고 하는데서 그 協商指導를 찾아 볼 수 있다.

北韓의 協商指導의 論理는 「動亂體制」의 瓦解라는 目標에서 「平和協定」으로 「休戰協定」을 代身하면서 「動亂體制」의 「基本要件이던 「유엔의性格」을 剝奪하며 「유엔」것말을 休戰線에서 降下시킴으로서 美軍의 駐韓駐屯의 根拠를 말살한다는 것이 그 論理인 것이다.

「平和協定」의 提案은 休戰線의 「政治的解決」을 「平和協定」으로 處理하면서 現今까지 「動亂體制」의 基本要件이던 「유엔의性格」의 「休戰條約」을 「平和條約」으로 代身함으로써 休戰線의 「유엔」管理를 排除하고 韓半島安全의 「유엔의性格」을 除去하는데 그 目標가 있으며 다시 말하여 韓國戰爭以後 樹立되었던 韓半島安全體制即 「動亂體制」의 「瓦解」를 그 協商目標로 하고 있다고 評價할 수 있다.

北韓은 6.25 動亂을 通하여 南韓에 대한 軍事的侵攻이 形成하여 놓은 國內的 政治環境과 國際的 政治環境이 自己들에게 全적으로 不利하였었다는 것을 잘 認識하고 있으며 北韓이 이 「動亂體制」를

脱皮하기 위한 努力의 歴史가 動亂以後의 北韓의 政治史라고 해도 過言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6.25 「動亂體制」란 말속에는 北韓이 南侵을 감행한 結果 事實上 南韓을 「反共體制」로 굳친 結果를 낳게 하였으며 6.25 動亂體制에서 形成된 南韓의 「反共體制」를 政治的으로 解除한다는 것과 同時에 國際的으로 6.25 動亂을 통하여 北이 侵略者로 規定됨으로서 事實上 北韓은 國際的孤立을 免할 수가 없었으며 이 國際的孤立을 脱皮하기 위한 政策的努力이 協商指導目標과 理念에서 「動亂體制」의 瓦解로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協商指導目標에서 이러한 6.25 動亂體制에서 形成된 南韓의 「反共體制」를 緩和시키며 解弛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勿論이러니와 特히 北韓의 「國際的孤立」을 解除시켜 불려는 協商目標가 깊이 作用하면서 「새로운 國際環境」을 韓半島에서 造成시켜 불려는 것이 卽 北韓의 軍事力이 南侵을 감행 韓半島에 「유엔」軍 또는 多數의 敵對國을 形成하여 놓았으며 國際秩序의 攪亂者로서의 烙印을 씻어보려는 것이 「動亂體制」의 「瓦解」라는 形態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이렇게 北韓이 6.25 動亂體制를 根本的으로 修正하고 脱皮하려는 것이 協商指導의 基本目標라면 協商指導를 통한 窮極的 目標의 하나가 北韓集團에게 「有利한 國內, 國際環境의 새로운 造成」함으로서 韓半島의 環境을 새로히 한다는 「動亂體制의 瓦解」가 協商指導의 最大目標임은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유엔」機構解体, 美軍撤收, 「平和協定」締結,

南北韓兵力의 減縮等의 北韓의 提案은 「動亂體制」의 修正을 통한
새로운 國際環境의 造成에 있다는 것이 北韓의 協商指導目標이며
그 目標가 韓半島에 있어서의 「動亂體制의 瓦解」에 있다고 評価
할 수 있다.

4. 南北協商의 政策的次元의 諸問題点

本項에서는 結論的으로 前項의 南北關係 및 協商에 대한 評價를 土臺로 하여 諸問題를 政策的次元에서 論하며 앞으로의 政策的問題點을 論하여 보기로 한다.

南北協商의 政策的次元을 論하나 基本的인 問題點을 論하며 이의 論理的把握은 事實上 具體的인 協商過程에 크게 影響을 주게 될수 있는 實際的인 政策的觀點에서 論하여 보기로 한다.

(1) 「諜報活動」과 「政治協商」의 区分

事實上 오늘날 南北協商의 担当機構面에서 볼때 「諜報活動」機構가 「政治協商」을 担当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事實上 「諜報活動」과 「政治協商」은 嚴格히 区分되어야 한다고 봐야한다. 그 理由는 簡單하다. 「諜報機關」은 技術的 機關이며 「테크니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政治的機能」을 갖는 機關은 아닌 것이다.

「諜報機關」이 「政治協商」을 担当할 수 있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

技術的인 「諜報機關」이 政治協商을 担当할때 그 政治的影響에 대한 責任은 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테크니칼」한 機關인 「諜報機關」이 政治協商을 担当하는 때는 限界點이 있는 것이다.

原來 「諜報機關」은 諜報를 蒐集하여 自己自身の 政治的主觀을 介入함이 없이 報告하는데 그치는 것이 「諜報機關」의 使命인 것이며 諜報自体에서 起因하는 政治的 影響과 結果에 대하여서는 그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原則이라고 볼수 있다.

現在 進行하고 있는 南北協商過程에서 그 進行過程을 보면 北韓은 嚴格히 「諜報活動」과 「政治協商」을 区分하고 있는 것과는 对照的으로 我側은 「諜報機關」이 거의 全的으로 「政治協商」의 主動者로서 進行시킴으로서 「諜報活動」과 「政治協商」을 嚴格히 区分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될 수 없는 것이다.

北韓이 「諜報活動」과 「政治協商」을 嚴格히 区分하고 있다는 것은 最近의 北의 「産業間諜」의 逮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北韓이 南北協商이란 平和的協商과는 全然 關係없이 높은 次元에서 「科學諜報」라는 새로운 「諜報活動」의 分野를 開拓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諜報活動」과 「政治協商」의 嚴格한 区分을 北韓側 南北協商過程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科學諜報」라는 새로운 諜報活動의 北에 依한 開拓은 南北政治協商과는 아무런 「關聯性」이 없는 것이라고 評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比하여 我側은 거의 全的으로 南北調節委員會에 依한 南北協商이나 南北赤十字會談의 担当과 指導를 「諜報機構」가 担当하고 있으며 이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勿論 「南北協商」이란 高度의 政治協商이란 機動性을 必要로 해야 한다는 데서 現實情으로 不可避한 點이 없지 않다고 볼 수 는 있다.

그러나 我側은 南北協商過程에서 我側政治協商의 担当機構가 「諜報活動」과 「政治協商」을 嚴格히 区分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점이

있는 것이다.

「諜報活動」과 「政治協商」을 「二重化」할 때에는 事實上 「諜報機能」이나 「政治協商」이란 機能 그 어느것도 有利하게 끌고 갈수 없는 것이 또한 事實이다.

더욱이나 「諜報活動」과 「政治協商」을 混合하거나 混沌할때 「政治協商」도 成功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技術機關인 「諜報機構」가 政治協商을 支援한다는 것은 當然하나 「政治協商」을 全적으로 担当한다는 것은 「諜報活動」自体로서도 不利하며 技術機關이 高等政策이라는 次元높은 政策을 實踐하는데는 무엇보다 「諜報機能」과 「政治協商機能」을 区分해야 한다고 評價된다.

「諜報機關」의 人的資源이 政治協商이란 公開的活動에서 露出될때 「諜報機能」은 마비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또한 技術機關인 「諜報機關」이 政治的責任을 지지않는다는 特徵에서 高等政策을 實踐해 갈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問題點은 이러한 「諜報機能」과 「政治協商」의 混沌이 아니라 嚴格한 두 機能의 分離가 先行되어야 하리라는 것은 「諜報機能」을 위해서나 「政治協商」을 위해서 区分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2) 南北協商過程에서의 技術性和 理念性

現在 進行하고 있는 南北協商에서 南北의 協商態度比較에서 技術性和 理念性이란 問題點이 提起된다.

北韓側의 協商態度와 指導는 根本적으로 「原則的」이며 「理念性」을 띠고 있다. 北韓은 自己의 原則과 理念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原則과 理念에 따라서 徹底하게 그 實踐方案을 我側에 強要하고 있는데 比하여 我側은 比較的 原則이나 理念보다도 「技術性」을 띤 協商態度를 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南北協商過程에서 北의 「理念性」을 協商態度를 단순한 「技術性」만을 띤 協商態度만을 갖고서는 北을 把握하기는 어려우며 理解하기 어렵다고 볼수 밖에 없다.

또한 「技術性」을 띤 協商態度에 置重하여 臨한다면 北의 原則的이며 理念的인 協商展開에 언제나 「말려」들어가 技術性만 갖고 我側の 協商地位가 不安하게 언제나 동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例로 北은 「南北共同聲明」의 統一原則이 金日成의 統一原則을 南이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그 金日成의 統一原則을 南北調節委員會나 南北赤十字談이 實踐하는 手段에 不過하다는 것이 北의 協商態度인 것이며 이러한 原則에서 体系的인 協商提案이 一糸不亂하게 提示되는것에 比하여 我側은 北의 提案에 對한 反射的 對策으로서 技術的으로 對應해 가는데 끝이고 있는 傾向이 濃厚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北은 어디까지나 「이데오로기」나 「理念」이란 協商의 原則을 中心하여 戰略을 짜고 있는것에 反하여 我側은 그時그時 北의 原則에 技術的으로 反應하는데 끝이고 있는듯한 印像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我側의 「技術性」을 띤 協商態度의 原因은 我側의 協商担当者가 「技術機關」인 「諜報機關」이 協商을 指揮하고 있다는데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는것이다.

「政治協商」은 「諜報機關」과는 別途의 政治協商機構가 必要하며 高等政策機關 特히 高等政策을 綜合할 수 있는 政治協商機構가

必要的 것이다.

南의 「技術性」과 北의 「理念性」의 갭을 어떻게 메꾸어 가느냐하는 問題는 南北協商의 重要한 問題의 하나인 것이다.

(3) 北韓에 「비틀기」派와 「매」派가 있는가 하는 問題點

南北協商에 臨하는 思考傾向에서 我側 思考方式이나 分析方法을 갖고 北이란 異質的인 政治・經濟・社會體制를 評價한다는 것은 我側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하다.

北韓이 果然 마치 越南戰에 對處하는 美議會모양 「비틀기」派나 「매」派 形式의 對南戰略의 異見이나 對內分裂이 眞實로 存在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을 適用할 수 있는가하는데 問題點이 있다.

北韓의 經濟社會를 「케인즈」의 經濟理論과 分析方法을 갖고 分析하려고 하여도 事實上 不可能한 것이 事實이다.

我側의 思考方式과條件을 갖고 北을 가늠한다는 것은 南北協商에서 極히 避해야 할 態度의 하나인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는 政治層에서 自由로히 어떤戰略이 討議는 되나 일단 決定된 事項은 金日成의 命令으로서 一糸不亂하게 實踐에 옮겨지는것이 原則이다.

北韓에 마치 「비틀기」派와 「매」派가 假想하여 存在하듯이 我側思考方式으로 假定할때 南北協商에서 큰 과오를 犯할 수도 있는 것이다.

南北協商의 北韓側의 強硬派와 穩健派가 있다면 이는 아마도 金日成의 戰略上의 二面이 있을뿐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의 對南政治協商에는 「비틀기」派와 「매」派는 없으며 있다

면 金日成의 얼굴이 하나 있을 뿐이며 그하나의 얼굴이 변할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南北協商과 心理戰問題 (統一黨 목소리放送)

北韓의 協商指導에서 協商과 並行하여 強力한 對南心理戰을 展開하고 있으며 特히 「統一黨 목소리放送」가 그 中心的인 役割을 하고 있으며 協商自体와는 別途로 政治戰인 心理戰을 展開하고 있는것이 큰 注目點이다.

그러나 協商指導의 一環으로서의 心理戰을 事實上 큰 重要性을 띠고 있는 것이다.

「統一黨 목소리의 放送」의 性格과 心理戰樣相과는 크게 差異點과 特異點을 나타내고 있다.

「統一黨 목소리의 放送」은 優先 그 位置가 南韓에 位置하고 있다고 北韓側이 主張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間에 1次會議(72.10.12)에서 決定된 「中傷・誹謗問題」의 추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黨 목소리의 放送」은 尙且 南韓內에 位置하면서 南韓의 住民 스스로가 北韓의 路線을 支持하며 革命路線을 따르는 듯한 假裝下에 心理戰이 進行되고 있는 것이다.

「統一黨 목소리의 放送」의 또 다른 特徵은 放送의 內容이 過去와 같이 단순한 「욕설」 등으로 一貫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暴路戰術」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對南心理戰에서 過去에 있어서는 單純하고 說得力이 없는 南韓에 對한 「中傷」으로 一貫함으로써 거꾸로 心理戰의 效果는 거이

있었다고 하는것이 北韓의 過去心理戰의 本質이었다.

그러나 南北協商以來 開始된 「統一黨목소리의放送」은 主로 「事實에 가까운」것을 「事實暴露戰術」로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 큰 特徵이다.

더욱 「統一黨목소리의放送」이 問題點이 되는 것은 南韓의 政治體制의 硬化過程에서 言論이 事實上 위축이 되었다고 할 때 國益上 報道하지 않는 部分과 內容을 包含한 國內外情報을 事實報道形式으로 暴露하고 있는 것이다.

南北協商以來 「相互 中傷・誹謗禁止」를 約束한 以來 이를 회피하면서 事實上은 對南心理戰에서 그次元을 높여 그 樣相을 달리하고 있으며 過去와 같은 對南心理戰의 「패턴」을 벗어나 強力하게 政治戰的次元에서 心理戰을 展開하고 있다고 評價되며 北韓의 協商指導에서 重要한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事實上 北韓이 南北協商 그自體를 次元높은 心理戰的次元에서 展開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統一黨목소리의 放送」은 南北協商과 並行하여 또다른 次元의 心理戰을 強力히 推進하고 있는 것이다.

南北協商指導에 있어서 이러한 協商과 並行되고 있는 政治戰的 心理戰을 防禦하고 國民을 이러한 心理戰으로부터 保護할 責任이 政府에게 있는 것이다.

南北協商과 並行되는 社會各層에 대한 心理戰을 強力히 組織化하며 實踐方案이 나와야하리라 思慮된다.

앞으로 南北協商의 進展이 難關에 逢着하여 그 進展이 不振하면 할수록 이러한 北韓側의 對南心理戰은 強化될 것이며 協商指導

의 主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5) 南北赤十字會談의 政治化事由

南北赤十字會談을 政治化하고 있는 北韓의 事由와 意圖속에는 南北關係에 있어서 基本的인 問題點이 놓여있는 것이다.

北韓의 社會體制는 「閉鎖性」을 그 基礎로 하고 있으며 그 「閉鎖性」위에 金日成의 權力體制가 形成되어 있는 것이다.

北韓이 南北關係에서 北韓의 權力構造의 基礎인 北韓社會의 「閉鎖性」을 南北赤十字會談의 「人的交流」를 通하여 開放한다면 權力構造의 基礎를 잃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北韓의 協商過程에서 이러한 「人的交流」라는 南北赤十字會談을 「政治化」시켜가는데는 이러한 基本的인 基礎的인 問題點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事實上 「南北韓家族찾기」라는 말속에는 動亂以後 北韓住民의 大移動과 깊은 關聯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北韓의 大部分의 家族中에는 1.2名은 南下했다고 볼 수 있다. 特別히 動亂을 通하여 北韓住民이 大的으로 南下하였으며 그中에서도 그 家族中 相當한 部分이 一時的인 戰爭에 被害를 입을 家長이나 長男等이 南下하게 되었다.

따라서 北의 相當數의 家族이 南下한 家族을 기다리며 20余年이란 期間 그 「閉鎖社會」에서 살아왔다면 萬一 北韓이 그 「閉鎖性」을 開放한다면 北韓의 權力構造를 밑바닥으로부터 동요케 하는 것이라고 把握될 수 밖에 없다.

20余年間 共產主義體制와 思想으로 그家族들이 洗腦하였다 하여

도 家族이란 「血緣關係」의 分離를 完全히 차단할수는 없는것이라고 볼 수 있다.

北韓이 南北赤十字會談을 통하여 南의 家族 消息만 傳하여져도 北韓社會로서는 견잡을 수없는 混亂을 惹起시킬 수 있는것이 事實이다.

北韓은 南北赤十字會談을 통한 「人的交流」는 事實上 北韓社會體制的 「閉鎖」를 開放하는 것이 되며 北韓社會體制的 開放은 北韓 權力構造의 동요를 意味하게 된다는 點에서 北韓은 南北赤十字會談을 「政治化」하여 事實上 封鎖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北韓의 「平和政策」과 協商目標

南北協商過程에서 北韓의 「平和政策」이라고 할 수 있는 「平和條約」·「軍縮」等等의 「平和政策」은 協商指導目標에서 매우 重要的 一般的이며 全般的인 目標과 關聯하고 있다.

即 北韓이 20余年間 形成하여 놓은 「軍縮政策」을 통한 北韓의 軍事力이 韓半島를 中心한 國際環境의 緊張緩和過程에서 露出되어 갈때 이러한 軍事力을 어떻게 「캄푸라쥬」하는가 하는 問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露出되어가는 北韓의 「軍事體制」를 保護하기 위하여서는 그 最善의 方法이 「平和政策」이란 心理戰的 對外宣傳이라고 할 수 있다.

事實上 最近의 政治的 轉換點에서 北韓의 軍事體制가 遺物化하여 갈 때 軍事體制를 그 基本으로 하고 있는 北韓으로서 南北關係의 最終的解決의 基本이 되는 軍事力의 「힘」의 變質없이 어떻게 軍

事体制을 維持하여 가느냐 하는 問題를 「平和政策」이란 保護色으로 「캄푸라쥬」해 나가고 있다고 評價할 수 있다.

北韓의 協商指導와 目標中에서 가장 큰 目標가 北韓이 自己体制을 어떻게 損傷함이 없이 強化하여 간다는데 있으며 自己体制의 強化는 結局 北韓의 「軍事体制」의 強化를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自己体制의 強化 即 「軍事体制」의 「變質化」없이 強化하여 간다는 것이 南北協商過程에서의 北韓의 指導目標中 最大目標라 할 수 있으며 그 最善의 政策으로서 「平和政策」을 宣傳하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

(7) 南北接觸과 第三国關係

南北協商에서 南北接觸이 거의 「諜報水準」에서 開始되었다.

그러나 그 政治的 影響은 「諜報水準」을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第三国들의 態度變化를 招來하고있다는 國際環境의 變化를 招來하고있다.

我側으로는 비밀리에 「諜報水準」에서 南北關係를 開始하였으나 第三国の 눈에 비칠때에는 我側의 北韓接觸은 「事實上 承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當然하며 西歐的 國際政治觀念으로 볼 때 더욱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도 「諜報機關」이 政治協商을 担当하는데서 오는 限界가 있는것이다.

現今 南北關係以來 變化한 國際環境의 變化는 予測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韓半島安全의 基本要件인 「유엔」問題에 이르기까지 深刻한 問題點이 되고 있는것이 事實이다.

적어도 協商過程에서 어떤 協商行為가 「諜報水準」이건 「政治水準」이건 간에 그 政治的 客觀性을 予測해야 하리라 본다.

現在까지의 協商過程에서 北韓과 단순한 接觸이라도 그것이 第三者에게 다시 말하여 國際環境의 變化라는 予測을 正確히 하지 못하여 왔으며 이에 起因한 政治的 影響은 크게 南韓에 作用하고 있다고 評價된다.

